

# 대권주자 '3인방' 혈투는 시작됐다

### 박근혜 나홀로 행보 속 문·안 속속 채비

### 야권 후보 단일화·'호남의 선택' 큰 관심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문재인 후보가 16일 선출되면서 대선 구도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3각 경쟁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 호남의 선택에 주목받고 있다. 호남의 지지와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대선 구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한 달 가까이 나 홀로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선출,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상황이다.

범야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민주당 후보 확정 이후 대선출마 입장을 발표키로 한 만큼 이번 주 내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와 안철수가 오차 범위 내의 접점을 벌이고 있는 데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문재인 후보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3자 구도 확정 이후 시중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더욱이 본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상대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된 터라 향후 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역사인식 논란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고리로 박근혜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새누리당은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주식전환 의혹과 전세살이 논란 등을 쟁점화하며 안철수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도 본격적으로 검증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민심이 흔들리고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형성된 여론의 흐름이 초반 대선판을 좌우한다고 보고 여론전에 사활을 걸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판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권에선 안 원장의 향후 행보를

놓고 역측이 무성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 원장의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치적 결단을 통한 단일화가 바람직하며 단일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와 안 원장 가운데 어느 쪽으로 누가 최종 주자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호남의 민심 흐름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의 민심은 안철수 원장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경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급상승 국면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민심 확보는 단일화 승리에 필수 요건인 것은 물론 야권 주

자로서의 동력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고 대진표가 정해지면 대선 판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 것"이라면서 "특히 야권의 단일화 논의 속도나 방향에 따라 대선판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후보. /연합뉴스

### ■문재인 걸어온 길과 인맥

### 정치입문 1년만에 대선후보 확정

### 참여정부때 '호남 차별' 해결 과제

민주당통합의 대선후보로 16일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정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되면서 또 하나의 정치권 신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문재인은 누구? = 문 후보는 1953년 거제에서 태어나 경남 중·고를 거쳐 경희대에 입학했다.

1975년 4월 대규모 시위를 이끌면서 구속·수감됐고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강제징집'을 당했다.

제대하고 복학 후 사시에 합격, 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시위 전력 때문에 관사 임용이 좌절됐다.

그때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을 만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비서실장 등으로 결을 지켰고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 되돌아갔다. 지난 4·11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인맥은 = 문 후보의 주요인맥은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 내에 있다. 한완상 노무현재단 고문, 경북대 이정우 교수, 김경철 의원과 서훈 전 국정원 차장, 유시훈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그들이다.

또 조흥식(서울대)·조대엽(고려대)·성경룡(한림대)·박명광(경희대) 교수, 공지영 소설가와 안도현·김용택 시인 등도 포럼 구성원이다.

문 후보의 정치권 인맥도 친노 그룹이 주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가 든든한 힘이며 백원우 전 의원과 함께 서영교·김현 의원 등 친노 직계 전·현직 의원 수십 명도 우군이다.

여기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윤건영씨도 문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경남고 후보로 19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등 문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문재인 주요 약력 민주당

출생 1953.1.24(경남 거제) 학력 경남고졸 경희대 법학과졸

주요경력 1975년 군부특채 반대시위로 투옥 1980년 계엄령위반으로 투옥 1980년 시법시험 합격(22회) 1982년 시법연수원 수료(127기) 1982~2003년 변호사 개업 1985년 부산인사법원법률회사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1991~2003년 부산 경남민선 대표 1995~2003년 부산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95~2006년 부산지방법원사회 인권위원장 2002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2006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06년 대통령 청무특보 2007~2008년 대통령 비서실장 2008년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사) 2010~2011년 (사)서해선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장 2012년 민주당 통합 상임고문(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민주당 통합(현)) 민주당 통합 대통령 선거 후보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2006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06년 대통령 청무특보 2007~2008년 대통령 비서실장 2008년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사) 2010~2011년 (사)서해선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장 2012년 민주당 통합 상임고문(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사상, 민주당 통합(현)) 민주당 통합 대통령 선거 후보

호남지역 인맥으로는 동교동계의 김옥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동채 전 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광문 전 MBC 보도국장 등이 있다. 현역의원으로는 우윤근·장병완·김윤덕·진선미 의원이 경선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했고 초선인 이학성·김광진 의원도 캠프에 참여했다.

◇문 후보와 호남 = 문 후보는 단기간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호남 차별'의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관교체를 바라는 호남민들의 열망을 여론조사 지지율에 이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전남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친노 핵심세력의 2선 후퇴 등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더 이상 사정하기도 싫다

###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구성 어떻게

### 대선거단장에 우윤근 등 3선급 거론

### 통합·쇄신·진보개혁·실무형 책임자로

민주당통합 대선 후보는 조만간 선거전을 이끌 수 있는 선거조각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달 20일 후보로 확정된 뒤 대선 행보에 들어간 상태를 감안하면 후보 주자인 문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 후보 측은 일단 대선기획단을 꾸린 뒤 선대위를 구성하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대선거단장에는 3선급이 거론된다. 캠프 내 인사로는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온 노영민(홍보)·우윤근(조직)·이복희(전략)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캠프 바깥 인사로는 최근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과, 4·11 총선 때 대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이 거론된다.

문 후보 측은 아직 선대위 조직도조차 만들지 못했지만 통합·쇄신·진보개혁·실무형 선대위라는 4가지 포인트를 두고 밑그림을 그려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더 널리,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정 정파나 계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친노(친노무현) 핵심세력의 2선 후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친노 세력의 백의종군 등 자기 희생 없이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 선대위를 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노 핵심세력에 엄청난 반감이 있는 민주당 내 비노(비노무현)·비문(비문재인) 세력이 당 밖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눈에 띄게 도울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서 안원장을 내심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는다면 문 후보가 원하는 '용광로 선대위'는 무리만 통합·화합 선대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 명차와 동행합니다-국내유일 4WD 세단 뉴체어맨 W

CHAIRMAN Full Warranty

체어맨의 품격에 스타일을 더하다-2013년형 H

CHAIRMAN New Classic

2013년형 체어맨 W 특별혜택(택1)		2013년형 체어맨 H 특별혜택(택1)	
Super safe program	금용리스 프로그램	일시불	Amazing H Program
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서비스 ② Amazing W Program(복합성 보험상품)	1년내 차대차 사고시 무상교환 2년내 호우침수, 도난, 화재시 보험금과의 차액보상 3년내 할부금 잔액 면제 및 위로금 지급(상해·사망, 장애시) 3년내 쌍용차 재구매시 100만원 추가할인	최저 월 리스료 299,000원 1년 반값리스 (리스료 50% 면제)	귀항비 300만원 지원 국내최초 정액리스 (월 700,000원), Amazing리스 종료후 잔가 50% 보장, 체어맨 W 대차시 5% 특별지원
<b>로열티 프로그램</b> : 쌍용차 재구매 고객 70만원 지원 혹은 수입차, 타사차량 보유고객 50만원 지원		<b>직원모집</b> : 아래 각 영업소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제어맨 H500S 고급형은 제외

**구입문의**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첨단) 971-0990 • 동광주 515-1900 • 광주풍암 655-4001

■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